

광주비엔날레서 북한미술의 정수 만난다

‘조선화’ 40여점 전시
9월 ‘북한 특별전’ 관심
천경자 화백 사위
문범강 교수가 큐레이터
대부분 최초 공개
평양 만수대창작사 작품



김인석 작 '소나기', 2018, 조선화, 217x433cm

〈문범강 교수 제공〉

만수대창작단에서 제작한 대형 집체화, 북한의 개성이 담긴 산수화...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일 대규모 ‘북한 미술전’(가제)의 밑그림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 인터뷰 16면〉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2018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모두 7개의 전시가 진행된다. 그 중 눈에 띄는 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북한 특별전’이다. 북한 미술 전문가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가 큐레이터를 맡아 북한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의 정수를 보여줄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시작은 모두 북한미술이 자랑하는 표현매체인 ‘조선화’다. 한국에서는 ‘한국화’, 중국에서는 ‘중국화’라 부르는 동양화를 일컫는 장르다.
화가로도 활동중인 문 교수는 지난 23일 광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전시는 조선화로 창작된 대형 집

체화가 주요 전시작이라는 점에서 무게 있는 전시로, 집체화가 주를 이룬 북한 미술전은 세계 최초”라며 “4~5m 대형 집체화가 여러점 전시되고 대부분 최초로 공개되는 평양 만수대창작사의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또 “내용 면에서는 인물 위주의 주제화와 다양하게 발전한 산수화가 소개되고, 북한에서 그 맥이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선비화를 발견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0여점의 전시작은 현재 북경 만수대창작사미술관과 워싱턴 Yedo Arts Foundation 소장품 중에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사위이기도 한

문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16년까지 모두 9차례 평양을 방문하는 등 오랫동안 조선화 연구에 매진해왔다. 북한을 찾을 때마다 만수대창작사, 백호창작사, 삼지연창작사 등 주요 창작사와 작가들을 직접 만나 작품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료를 수집해왔다.
문 교수는 비엔날레에서 전시할 작품도 일부 공개했다. 1월 현재 창작 진행중인 현대 주제화 ‘소나기’(김인석 작)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또 독특한 화풍의 산수화로 인민 예술가 최창호의 작품인 ‘금강산’(2010), 집체화 ‘자력갱생’(2017) 등도 눈길을 끈다.

문 교수는 “체제 속에 갇힌 미술이라고 인간이 창작하는 예술마당은 자로 잰 듯 확실히 그을 수 없는, 다른 여지가 있다”며 “이번 전시는 그 여지를 감상할 기회로 관람객들이 편견 없는 시각으로, 새로운 미술양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북한 미술에 접근한다면 한반도 문화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교수는 지난 2016년 미국 워싱턴 카젠미술관에서 ‘북한의 현대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변천’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으며 오는 3월 북한미술을 주제로 한 책 ‘평양미술-조선화 너 누구냐’도 출간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뉴스초점 / 야당발 정계개편... ‘호남 1석 중천금’

호남의원 1명 과반 좌우 국회 권력의 향배 가른다

창당 속도 내는 ‘민평당’
교섭단체 20석 달성 관심
여당도 연대·연정 목소리

최근 야당 발 정계개편으로 혼란한 정치권에 ‘호남 1석 중천금’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어 주목된다. ‘호남 의원 1명이 향후 국회 권력의 향배를 가른다’는 의미로, 여의도 정가에서 이른바 ‘정치 고수’들 사이에 조용히 퍼지고 있는 말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바른정당과 통합 실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반대파는 ‘민주평화당’ 창당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의 권력지도가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여소야대 정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중요한 순간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재인 정부가 뜻대로 정국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탄생한 신당은 여권의 반대편에 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차질을 빚을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지방선거를 전후로 진행될 여야 원구형 협상에서 여당이 의석 수 부족으로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돼 있다.
이날 현재 국회 의석수는 297석이고 현재 제1당인 민주당이 121석, 제2당인 자유한국당이 118석을 갖고 있다. 불과 3석 차이로, 민주당은 자칫 제1당의 지위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에 우호적

인 정의당(6석)·민중당(1석)과 정세균 의장(무소속)을 포함하면 129석이다. 과반인 149석에 20석이나 부족해 국회에서 어떤 정책 안건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 세력이 통합 찬반으로 갈리면서 반대파 의원들이 따로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어 여권에는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민평당에 참여하는 세력 대부분이 호남지역 정치인들로, 이념과 정책 부분에서 현 여권과 공통분모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민평당 측과 연대는 물론 연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전남 민주당 김영진 전라기획위원장의 “(민평당은) 민주당과 공통점이 더 많다”는 발언은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줬다.

문제는 민평당 창당에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구 의원이 15명 뿐이라는 점이다. 안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제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비례대표 의원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민평당으로선 마지노선인 20석에서 5석이 부족하다. 20석은 여당이 과반을 얻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민평당 자체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확보해야 할 의석이다. 따라서 중도파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현재 중도파 지역구 의원으로는 박주선·주승용·김동철·황주홍·이용호·손금주·김성식·이찬열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 특히 호남 의원 한명 한명의 선택이 국회 권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있다. 부산 엘씨티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처럼 사법 처리 등으로 의석을 상실하거나 지방선거 출마로 의석을 잃는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도 여당 의원들의 출마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여당에 유리한 구도는 아니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인·기관 쌍끌이...코스피 2562.23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25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4.23포인트(0.95%) 오른 2562.23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11월 3일 세운 2557.97포인트였다.
앞서 코스피는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 16분께 2564.43을 찍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도 갈아치웠다. 전날보다 1.04포인트(0.04%) 내린 2536.96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자’에 나서면서 연거푸 신기록을 세웠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44억원, 3022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019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종이목재(2.50%), 기계(2.29%), 건설업(2.14%), 전기전자(2.04%)

등이 올랐고, 은행(-0.94%), 보험(-0.34%)은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1665조284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5억716만주, 거래대금은 7조6816억원이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였고 전체적으로 3037억원 순매수였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상승 반전하며 900



고지 재돌파를 눈앞에 뒀다. 전날보다 소폭 하락 출발한 지수는 오후 들어 강세로 전환해 3.83포인트(0.43%) 오른 898.60으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한파 피해 고충 양식장 르포 ▶6면
新팔도유람-경기 커피거리 ▶18면
오늘 정현-페더러 4강 대결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평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 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 게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ER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상담: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